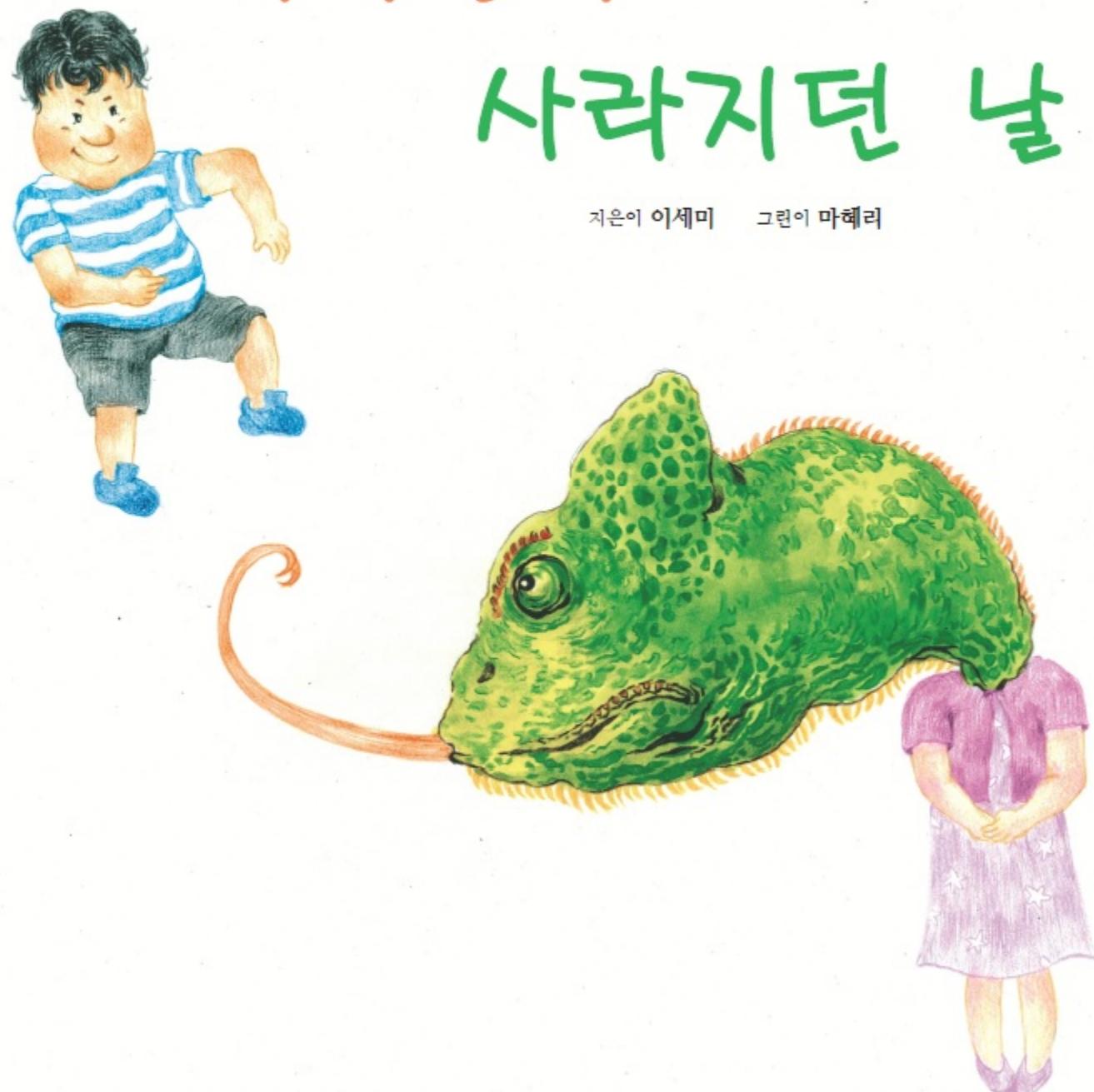


이 책은 베스티안재단의 2018년 멘토링 프로그램
“화상환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앤맘) 4기”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화상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웠지만,
사고를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 담긴 진심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더 이상 화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러핀이 사라지던 날

지은이 이세미 그린이 마혜리



- 베스티안재단의 2018년 멘토링 프로그램 “화상환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앤맘) 4기”는
(주)셀리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책의 그림은 한성대학교 회화과 학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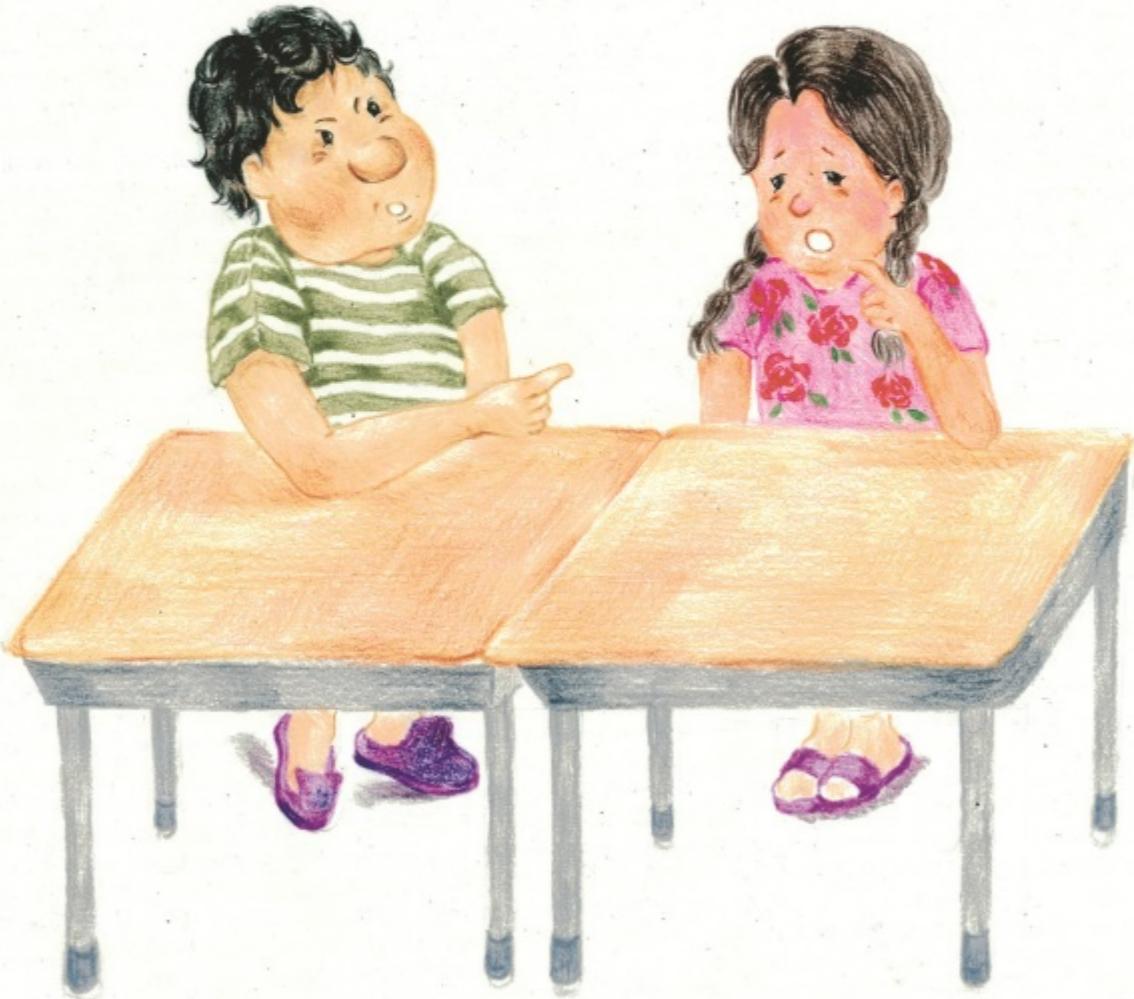


학교가 끝날 무렵 지아의 머리핀이 사라졌다.
예쁜 곰돌이 모양에 알록달록 보석이 박힌
머리핀이다.
학교 오자마자 자랑했었다.





머리핀을 찾기 위해 우리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선생님이 핀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내 짹꿍 근석이가 말을 했다.
"서희가 쉬는 시간에 지아의 핀을 만지는 거 보았어요."



선생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내게 물어보셨다.
"서희가 가져갔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나왔다.
기가 막혀서 고개를 흔들었다.



근석이는 소문난 말썽꾸러기다.

형들이랑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힘도 세다.

누구도 근석이를 건드리지 않는다.



"근석이가 만지다가 부러졌는데
휴지통에 버리는 거 보았어요."
뒷자리에 앉은 아리 목소리였다.



시연이네 도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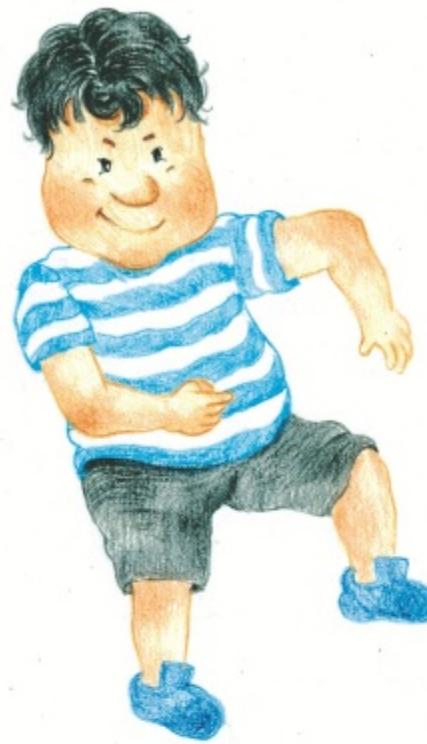


아리는 목에 생긴 화상 흉터를 긴 머리로 가리고 다닌다.
그럼에도 할 말은 하고 마는 당당한 친구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친구다.



그 일로 아리와 단짝이 되었다.
소꿉놀이도 숙제도 등하교도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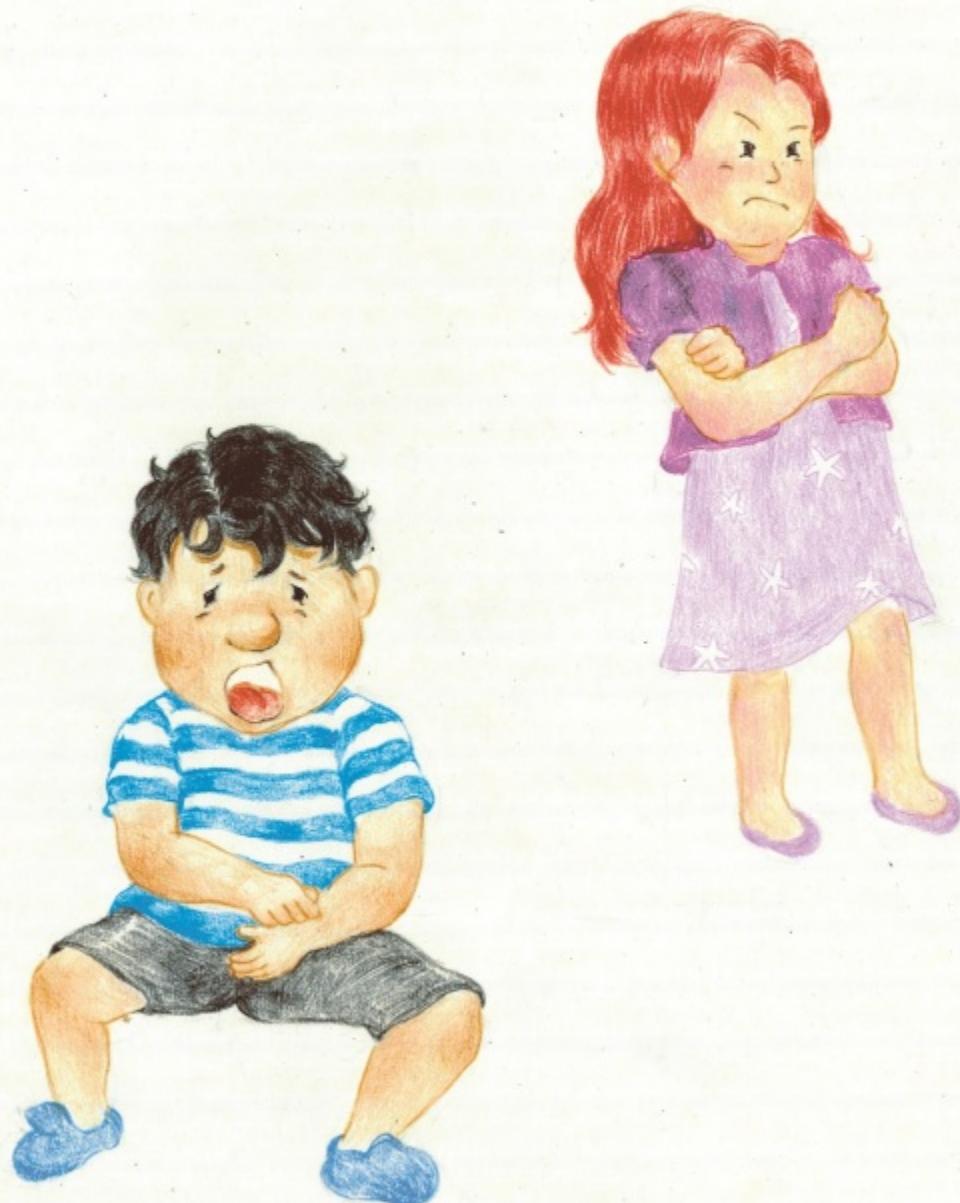
그날부터 균석이는 아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머리를 잡아당기고 치마를 올리는 장난도 쳤다.
"파충류 같아 목이 너무 징그려워."
근석이가 아리를 놀렸다.



아리는 근석이의 팔을 아주 세게 깨물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근석이 팔에 빨갛게
잇자국이 남았다.
"너는 아주 못된 파충류야!"
아리가 근석이에게 소리쳤다.



근석이는 팔을 잡고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아리야 왜 근석이 팔을 깨물었니?"

"...."

아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기만 했다.
선생님이 여러 차례 물어보아도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리는 단 한 번도 팔을 내리지 않고 벌을 섰다.
울며 서 있는 아리에게 미안했는지
근석이는 사실대로 말했다.
선생님은 아리를 꼬옥 안아주셨다.



아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이 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리는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해요.
많이 힘들 거랍니다.

아리의 상처는 다른 친구들 상처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놀려서도 안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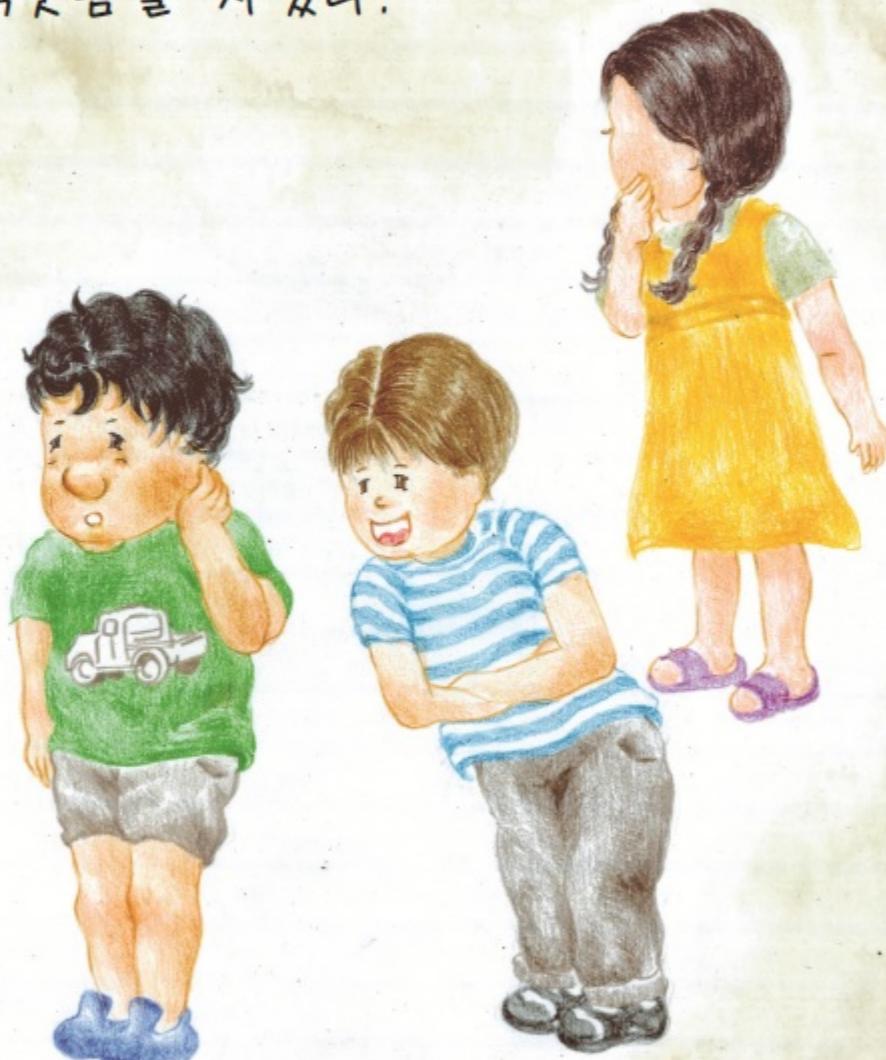
아리는 명랑하고 즐거운 친구다.
우리는 그런 아리가 보고 싶었다.



아리가 학교로 돌아오던 날
우리는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가장 눈에 띄던 선물은 근석이 선물이었다.
하얀색 텔목도리였다.
친구들은 여름에 텔목도리가 뭐냐고 웃어댔다.
아리는 텔목도리 선물이 가장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참여자 소감



화상으로 인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친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의 경험이 도움 되길 바라면서 이 동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동화를 보는 아이들 모두 덜 아프고 덜 상처받고
씩씩하게 커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베스티안재단,
너무도 이쁘고 친절한 민보경 선생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아름다운 김향이 작가님, 정현이 교수님,
예쁜 그림을 그려준 동화 일러스트 마혜리 선생님,
그리고 함께한 아이앤맘(&Mom)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8년 12월
지은이 이세미



화상환자들에게 늘 온정의 손길을 주는 베스티안재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작은 동화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세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상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화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날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신
김향이 작가님, 정현이 교수님, 민보경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동화로 피워질 수 있도록 글을 선물해주신
이세미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좋은 선물로 남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그린이 마혜리

머리핀이 사라지던 날
© 이세미, 2018

지은이 이세미
그린이 마혜리
편집 민보경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문 김향이(글, 그림) 정현이(그림)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